

		보 도 자 료		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인천광역시	
배포일자		2021년 3월 25일(목) 총 2매			
담당 부서	보건환경연구원	담당자	• 환경조사과장 최상인 ☎ 440-5541 • 담당자 박진영 ☎ 440-5542		
사진	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
보 도 시 점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
인천시, ‘우리동네 지역 대기질 진단평가’ 추진

- 대기오염물질 공간분포 지도작성 및 고농도 지역 정밀진단 -

- 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는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기질 관리를 위해 「우리동네 지역 대기질 정밀진단평가 사업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.
- 그동안 인천시에서는 대기질 측정을 위해 측정소를 30개소로 대폭 확충하고 이동식 대기측정시스템 및 도로 재비산먼지 측정차량을 운영하는 등 정확한 대기질 자료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.
- 작년에는 코로나(COVID-19) 발생 및 미세먼지 저감 정책 등 복합적인 영향으로 대기질이 개선되었지만 올해에는 대기오염도가 다시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지역 대기질 진단과 관리를 위한 노력이 한층 더 필요한 상황이다.
- 이에 인천시는 소규모 단위지역의 대기오염물질 공간 분포 조사를 위해 현장에 쉽게 설치 가능하고, 동시에 다양한 지역의 대기질을

파악 할 수 있는 수동형 확산포집기(passive air sampler)를 이용한 조사를 시범적으로 추진한다.

- 대기오염물질 공간분포 조사는 인천 서구를 대상으로 공간, 주거 밀집도, 오염물질 배출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50개 지점을 선정하고 초미세먼지(PM-2.5)의 주요 원인물질로 알려진 질소산화물(NO_2), 황산화물(SO_2)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질(VOCs) 등을 조사해 농도분포를 지도로 작성할 예정이다.
- 또한 조사결과 오염도가 높은 지역은 대기오염측정차량을 이용한 대기질 조사와 더불어 미세먼지의 성분 분석을 통해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대기질 정밀 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.
- 권문주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“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있었던 우리동네 대기질을 체계적이고, 과학적인 방법으로 분석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대기질 관리 방안을 수립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” 라고 말했다.

<붙임> 관련 사진

<붙임> 대기질이동측정차 사진

